

어린이·기업·소비자를 위한 ‘상생(相生)의 안전벨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권순남 교수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수원 남정유치원장

‘우리 아이 별 일 없죠?’, ‘안전하게 잘 있죠?’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유치원으로 걸려오는 인사전화이다.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같다. 그리고 늘 불안하다.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하물며 함께 하는 가정에서도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발달적 특성상 자기조절 능력과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기 마련이다. 특히 최근의 어린이와 관련된 일련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보도내용들은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 줌과 동시에 올바른 안전수칙과 같은 예방책 마련 및 지속적인 관련 법규의 강화와 같은 필요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외부로부터의 위험요인을 차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반가운 소식은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지난 6월 4일부터 제정되기 시작하면서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에서 중금속 등 유해성분이 과다 검출하게 되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데 따른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 미칠 위험이 큰 어린이 제품은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이나 혹은, “안전확인”을 통해 안전성을 반드시 검증 받아야만 한다. 또한 안전성을 표시하기 위한 KC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데 만약 이 마크를 달지 않고 어린이 제품을 유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등 관련법의 벌칙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에게 '조심해라', '안전하게 놀아라' 는 이율배반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놀이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나 꼭 필요한 발달과업에 속한다. 놀이는 아이들이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성장해 나가는 수단이자 소통창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언어적 표현의 한계로 인해 놀이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스스로 잠재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비롯해서 선생님과 같이 그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어른들은 아이들이 맘껏 뛰어노는 과정에서 행여나 다칠까 싶어 늘 조심해서 놀 것을 당부하거나 끊임없이 종용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자칫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상할까 싶어 염려하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는 아이들에게 가장 불필요한 말일 것이라 판단된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능력이 강하면서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력을 자랑하지만 그에 반해 집중력과 위험을 감지하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그냥 노는 거다. 잘, 마음껏, 신나게!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켜야 하는 건 100% 어른들의 몫이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은, 그리고 사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놓여있는 현실은 어떠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일면에는 '유해물질 검출된 유아·어린이용품 28개 리콜 명령!', '어린이시설 20%, 중금속등유해물질검출', '어린이용 캐릭터가면 유해물질검출 주의'와 같은 위험요인들이 곳곳에 널려져 있을 뿐이다. 정부의 안전관리에도 불구하고 가깝게는 2015년 올 한해에만도 어린이 제품과 관련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하루가 멀다 하고 온통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린이 제품과 관련하여서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인 만큼 학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와 국민들의 걱정 또한 상당하다. 이는 각종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리콜하기 전에 처음부터 검사를 제대로 해 주었으면.", "애들이 매일 얼굴 문지르는 침대에 화학물질이라뇨.", "고객 신뢰로 먹고 사는 기업이 물건 하루만 팔고 치울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실제 유아교육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한 사람으로써(혹은 실무 경험자로서) 본 지면을 통해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상생의 벨트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는 최근 들어 홍수처럼 쏟아지는 어린이 관련 제품의 양적 증가로부터 보다 긴밀히 대응하고자 어린이 제품과 관련된 직접적인 주요 대상자인 어린이, 기업, 소비자 군집(群集)을 주축으로 한 대응책이라는 점이다. 상생의 안전벨

트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영향을 받은 어린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 소비자인 교육기관과 학부모가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은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제정, 6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 제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을 유통, 판매하게끔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물론, 기존에도 만 3세 이하 혹은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40여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진행해왔으나, 이제 그 범위와 폭이 모든 어린이 제품으로 확대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 역시, 신규로 출시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의 안전기준을 통과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상당한 불이익을 얻게 된다. 물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은 서로가 다를 수 있다. 소비자에게 소중한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겠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 더욱더 까다로워진 법적 규제에 사업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 역시 한 명의 소비자이자, 부모이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아이를 둔 부모라면 1%라도 저렴한 제품보다, 1%라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택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 당장 눈앞의 것이 아닌, 좀 더 먼 곳을 향해 넓은 시야를 가지기를 당부하고 싶다. 또한, 사업자가 '기본과 원칙'을 지켜 만든 제품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보호자는 제품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만들고자 하는 '어린이 안전'을 향한 건강한 사회적 선순환구조이다. 소비자에게도, 사업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소비자에게는 안전에 대한 믿음을, 사업자에게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경쟁력을 키우는 진정한 '상생(相生)의 안전벨트'가 되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나아가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갈 것이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소비자의 더 큰 관심과 참여가 함께 할 때, 사업자에게는 인식의 전환과 이행의지가 함께 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 할 수 있다. 더는 유해물질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는 상처받거나 고통 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모두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진정한 선진국을 이뤄 가길 기대해 본다.